

## 작은 실천

### Little Praxis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Dong Jung-Geun

치욕의 97년은 지나갔으나, 지옥의 98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많은 정책 전문가들은 어디로 가고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정치가들이나, 지나간 후 큰 소리치는 언론매체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과거에서 얻은 지식으로 미래 시행착오를 없애는 것이 전문가의 임무인데 우리에게서 내일을 보는 전문가가 없었는가?

네탓인가? 내탓인가?

우리 건축계도 작금의 세태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을 우리는 아는가?

건축설계 시장 개방이라며, 외국의 건축가는 누가 끌어 들였는가? WTO가? 미국의 압력으로? 건축주의 요구, 아니면 건축디자인의 능력이나 기술의 부족을 메꾸기 위함인가? 그러면 구태의연한 아파트나 중규모 공공건물 그리고 기술능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업무시설 등의 현상설계는 왜 외국 건축가들을 끌어들이려 현상설계에서 대리경쟁을 하여왔는가? 건축전문지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각성을 촉구하였으나, 어느 건축가 하나 관심을 가졌으며 어느 현상설계 심사위원 하나 문제 삼았던가? 우리의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이 이토록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급조된 대형설계사무실에서의 저효율 고임금이 대학에서는 인기있는 학과로 만들었으나 요령만 배운 젊은 건축가를 양산했으며, 쉽고 편한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예비건축가들을 만들어 왔다. 설계능력보다는 수주능력이 건축가의 능력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 건축속에 침잠하기보다는 편한 방법을 찾아 건축잡지를 뒤적여 모방과 비슷한 스타일들을 양산해 운데 앞장선 건축잡지는 종류도 많고 장사도 잘되어 있었다.

부실 설계는 국내건축가의 신뢰를 떨어 뜨려 외국 건축가를 불러 들였고, 부실 공사는 외국 감리단을 불러 들였다. 사치풍조는 사치성 수입자재를 끌어 들였다.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결과인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내실보다는 외형, 안정보다는 팽창, 효율성보다는 지표우위의 경제원리를 고수하여 왔다. 능률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는 대재벌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왔으며 팽창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 덕에 자동차, 조선사업 등 중공업의 육성으로 기간산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고 첨단 기술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외중에 경제는 대재벌에 편중되어 왔고 또한 권력도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었던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대규모 권력이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에 파급을 끼쳐왔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큰 목표 큰 목소리, 대규모 개발과 대규모 문화행사에 우리는 감탄하여 왔으며 국력의 상징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대규모 권력구조 속에서 구축된 땅에서, 우리가 머무를 곳과 시선을 묶어줄 장소성과 지역성을 잃어가는 건축환경을 보게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권력이나 대규모 자본의 종속성 속에 함몰되어버린 무의식적인 건축행위들, 즉 이러한 권력집중 현상은 대형문화를 만들면서 우리의 건축문화 가치기준을 흐리게 하여 왔다.

대규모 문화행사에서 볼 수 있는 비문화적 행위들..... 올림픽이다, 엑스포다 하는 세계 대 제전 등 대규모 축제를 통해 우리는 국력을 확인해 보려 하지만 어설픈 준비는 관람자들을 실망시켰으며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양상만을 보여왔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른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사를 끝내고 벌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흉물스런 거대한 구조물뿐이다. 요즘은 지방마다 세계제전을 유치하거나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남은 결과는 포장마차와 차량의 무질서, 그리고 소속을 알 수 없는 쓰레기만이 남는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대중 소비문화만을 부추길 뿐이다. 대중 소비문화의 특징은 귀한 것을 소비하려는 경향으로의 변화에 있다. 소비는 문화적, 사회적 신분의 척도로 인식하고 누구나 신분의 상승을 위하여 소비를 문화적으로 향유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문화가 발달할수록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은 종류의 물건과 많은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 필요해진다. 대규모 문화공간은 귀족적인 향유의 개념에서 대중소비의 마당이 되어 우리 주변 곳곳에 건립될 것이다.

건축물도 소비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독자성의 포기이다. 독자성을 포기하고 모조된 전통, 자본과 권력 앞에 진실과 허위, 선과 악의 관념적 구분마저 혼란시키게 된다. 단기간에 거대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오류,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 헤매는 광기에서 생겨진 결과인 것이다. 작지만 실속 있는 문화행사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모여 저력을 형성하게 된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낳는 비 장소적 행위들..... 대규모 자본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주변 지역의 규모나 지역 성격에 무관하게 시행되면서 주변 지역과 끝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은 권력과 결탁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가 도시기능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변경되거나 개발 우선 순위가 바뀐 비도덕적인 결과의 땅들도 있다. 대규모 개발은 재벌 권위주의로 발전하여 재벌끼리의 층수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63층에서 100층 이상의 높이경쟁은 토지이용의 효율성보다는 패권싸움인 것이다. 하늘에 도전하는 자본력과 기술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 바벨탑을 연상시킨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수입을 목적으로 관광단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무계획한 대규모 단지개발은 또다시 장소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관광상품이 전국 어느 지역이나 같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듯이 급조된 관광지 역시 비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있다. 초월에서 포일로, 나는 놈 위에 기는 놈이 있다고 한다. 작지만 풍요로운 건축, 작지만 가고싶은 장소가 모여야 살고 싶은 국토가 형성될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문화의 획일성..... 문화의 상업화는 자본가들에게 소유욕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자신의 가치로 문화를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의 사옥을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형태로 짓고 있으며, 쉽게 돈으로 산 외국의 건축문화를 세계화의 기수인양 자랑스럽게 들어오고 있다. 또 관 주도의 건축들은 지역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란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체계의 표현이며, 생활방식의 총체이다. 한 사회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작은문화인 것이다. 문화는 급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랜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심화되고, 내면화되면서 하나의 물리적, 정신적 총체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개인의 힘만으로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문화가치가 모여서 삼삼오오 지역문화가 생기고, 공동문화가 개인의 생활 속에 침투되어 녹아질 때 생활문화가 정착되어 진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과거유산을 아끼는 마음과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투영되어질 때 작은 문화는 발전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  
그리고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저력이 형성되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마음이 되는 것이다.